

ISSUE 01

식품제조업의 현실과 발전 방안¹⁾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매출액 기준 177조 원이며, 2016~2023년 연평균 7.2%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6.4%에서 2023년 6.6%로 증가하였다. 식품제조업은 생산과 고용이 동조적인 대표적인 산업으로,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는 매출액 성장과 동반하여 나타났다. 다양한 통계와 2025년 식품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품제조업의 인력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폭도 크지 않다

식품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수익성(영업이익률)이 낮으며, 영세업체 비중이 높고 시간당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식품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노동강도는 높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시간당 급여 통계를 보더라도 식품제조업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조업 대비 열악하다. 2010년에 식품제조업 시간당 급여는 제조업의 77.4%, 음료 제조업 시간당 급여는 109.1%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각각 73.7%, 99.8%로 낮아졌다. 식품제조업 임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근속에 따른 임금커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식품제조업 부문은 전 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증가가 낮다. 식품제조업에서 1년 미만 근속자와 10년 이상 근속자의 시간당 급여 격차는 2010년 2.25배에서 2024년 1.90배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내 인력 공급이 줄어들다면, 취업자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타 제조업에 비해 인력 공급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장



1) 박미성·임지은·우병준·주준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2025년 2/2차년도)」를 정리·인용하였습니다.



둘째,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제조업 및 전산업에 비해 노동자 안전 문제가 높은 편이다

식품제조업은 일반 제조업과 유사하게 절단기, 혼합기, 분쇄기 등 기계·장비와 근접하여 작업한다. 그리고 반복·중량물 작업 구조, 중소기업 중심의 안전관리 여건 제약 등으로 현장 생산직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재료를 다루므로 작업장에서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해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2023)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식품제조업의 산업재해율은 0.72%로 제조업(0.59%)과 전산업 평균(0.58%)보다 약 20% 정도 높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식품제조업 부문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식품제조업 산업재해율

0.72%

제조업 산업재해율

0.59%

전산업 산업재해율

0.58%

셋째, 취약한 고용구조로 인해 길게 일하는 근속인력 비중이 적다

식품제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임시일용직이 비정규직과 개념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용계약이 길지 않고 덜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식품제조업 부문의 고용구조 또한 노동 여건과 같이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취약한 고용구조는 길게 일하는 근속인력의 비중을 낮추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인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넷째, 식품제조업 현장은 지역 비중이 높아 인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된다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아 노동 여건 개선에 한계점을 갖는 동시에,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추구하는 청년세대는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지방 근무를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다. 지역 인프라 개선은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역 소재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문제를 가중시킨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도권 외 도 지역)에 위치하는 식품제조업체는 ‘지방에 소재하는 위치의 불리함’이 내국인 노동력 확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생산직 인력 부족 경험이 가장 높으며, 향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가장 부족 경험이 높은 직종은 생산직이며, 향후 10년 내 생산직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부족 경험에 대해서보다 동의율이 더 높았다(설문조사 결과). 생산직은 체력을 요하는 업무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고령자로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 부문의 업무 강도를 낮추어 고령 노동자 활용을 높이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 식문화가 해외로 빠르게 확산하며 농식품 수출액이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공식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³. 앞으로 식품제조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집약적인 식품제조업 특성상 향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자동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자동화 공정 적용 업체를 대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 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력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식품제조업에서 양적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중고령자나 외국인

² 실제로 본 연구(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업체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체력을 요하는 일이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³ 박미성·임지은·주준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2024 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체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를 점검하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내용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물론 이와 함께 업체에서 선호하는 청년인력의 식품산업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추세에 맞춰 식품제조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 중고령자 등 여러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일부는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였다. 업종과 공정별로 자동화 도입 여부와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자동화가 진전된 업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모든 공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 비율 역시 10% 미만으로 나타나 향후 식품제조 분야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에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제조 공정에서의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은 장기적으로 식품산업의 노동집약도를 낮추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투입을 감축하기 위해 ‘자동화·식품로봇 및 신기술 도입 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의 과제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보급 확대, 식품로봇 실증 및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들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에 인공지능(AI) 혁신 반응이 필요하다. 🗨

식품제조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집약적인 식품제조업 특성상 향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